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미약과 창대의 역학관계 성경: 욥기 8장 1-9절

Tag: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3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4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5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7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8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9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욥8:1-9)

인생을 해석하고 삶을 저울질하려는 욥구는 모든 인간의 본능일 것이다.

-욥과 세 친구는 그 어떤 수를 동원해도 결코 풀리지 않는 욥의 인생에 대한 이해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

-욥은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사탄은 욥을 시샘 하였지만, 딱히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고(순전한 자는 마귀가 틈을 발견하지 못함;순전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심.)

-사탄은 그저 자기의 못된 오기가 발동하여, 하나님 탓을 하였다.

-하나님이 욥에게 과분한 복을 주시니, 욥이 저렇듯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만약 그에게 고난이 닥치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을 설파함.

-욥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게 맘대로 하라고 하셨다. 다만 결코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하셨다. (후에는 몸에 손을 대어도 생명은 해하지 마라)

-사탄은 가서 욥의 모든 소유를 없애고 자녀를 죽였다.

-욥은 줄지에 거지가 되었으나,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어서 위로 하러 왔다.

-그들은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결코 사정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소위 멘붕상황이 되었다.

-욥은 심한 가려움으로 거의 죽기 일보직전이 되었다. 마귀가 생명은 건드릴 수 없어서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하였다.

-욥은 극한 상황에서 죽기를 구하였다.

-욥의 친구가 하는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였다.

-왜냐면 그들은 보편적인 인생에 대해서 말쟁이가 될 수는 있어도 욥이 당하게 된 상황은 도무지 해석할 수 없었다.

-결국은 욥의 자녀들이 별받을 짓을 했다고 결론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욥도 그렇게 해석하고 싶으나 그 성격상 결코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을 용납할 수 없었다. 기왕 이렇게 된 것, 아마도 그랬겠지 했으면 마음만이라도 편할텐데 욥은 그러지 못했다.

-일단 스스로가 결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다 죽는 상황에서 나만 남겨 두었는지 도무지 하나님의 심보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저 슬퍼하고 체념하고 절망하였으니 이제 죽고 싶은데,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를 괴롭혔다.

-육창도 그를 괴롭혔고, 이해할 수 없는 처지가 그를 괴롭혔다.

-드디어는 미치광이가 되어 입을 함부로 놀리며, 괴로움에 울부짖으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대들게 됨.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잠이라도 잘까 하는데, 주께서 꿈 속에 나타나서 나를 두렵게 하시네요. (아마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같음)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이니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왜 거지를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내가 이 지경인데도 주께서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설혹 범 죄한들 주께 무슨 해가 됩니까?

-왜 나를 과녁으로 삼으십니까?

-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친구들의 질책 때문?)

*그리고 오늘의 수아 사람 빌닷이 등장함.

-수아 사람이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욥이 이처럼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빌닷은 일단 분노하였다.

-우리가 문상을 왔고, 위로하러 왔지만, 말이 막나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단 욥도 그렇지만 세 친구들도 욥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이해되지 않았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짐승처럼 살지 않으려면 감성과 이성과 법도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경험과 가르침과 이해와 깨우침을 통해서 체득되는 것들이다.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자부심이 되고 확신이 되고, 마침내 리더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도 하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세상을 다스리기도 한다.

-그러나 사건 하나(결코 작지 않는, 그러나 일순간에 망한 사건. 욥 홀로 남고 모두 사라진 사건) 때문에 욥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경험과 지혜가 무너졌다.

-단순히 위로 하고 위로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지 않는다.

-위로 자체가 무의미하고 불가능한 경우다.

-답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답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정답 자체가 모순에 빠졌기 때문이다. 예외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예외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물론 더 긴 시간과 더 높은 시각으로 보면 되지만-욥기 앞부분을 보면 왜 이런 예외 상황이 발생한지도 알 수 있음. 뒷부분을 보면 더 창대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욥기 8장 상황은 방황 그 자체이다.)

-마귀의 말은 결국은 거짓말로 드러난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거짓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1번 세계관;권선징악-그러나 주어가 빠져있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음.(세속적 세계관, 알맹이 없는 껍질;인정은 하지만 정답은 아님.)

2번 세계관;권선징악의 주체가 하나님(주관자, 통치자, 절대자, 주권자) 욥과 세 친구의 세계관.

3번 세계관;구원자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3번 세계관에는 주권자 하나님의 선택과 집중이 담겨 있음.

-선택과 집중;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심.

2번 세계관의 맹점은 구원이 없다는 것. 제사는 드러도 진정한 죄사함은 없고, 회개는 하여도 용서는 없다는 것. 욥기가 성경인 이유는 구원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빠져버린 세계관의 딜레마를 설명하기 위한 것.

-욥은 이런 깨우침을 주기 위한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에게 그토록 복을 주시고, 후에 더 주심. (그러나 이 또한 2번 세계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임; 빼앗으려면 주지를 말든지, 다시 줄려거든 빼앗지 말든지-그러나 3번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2번도 지탱될 수 있었다는 것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엿보임)

미약과 창대의 역학관계

- 하루를 살면 이해되지 않아도 일생을 살면 이해됨.
- 일생을 살면 이해되지 않아도 천년을 살면 이해됨.
- 1번 세계관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2번 세계관으로는 이해됨.
- 2번 세계관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3번 세계관으로는 이해됨.
- 미약하더라도 순전하기만 하면(마귀의 말에 휘둘리지 않음.) 그는 반드시 창대하게 됨.
- 이것은 마치 작은 씨 하나가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음.
- 씨 한알에 들어있는 DNA가 거대한 나무에 무수히 들어있는 DNA와 똑 같음.
- 이제 나에게 오염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DNA가 있느냐가 제일 핵심. 내가 얼마나 살든지, 사는 동안 성공할든지, 창대하게 될런지는 핵심이 아님. 내가 순전하는지가 핵심임.

<찬양예배>

제목 : 코로나 이후 성경: 마태복음 16장 1~4절

Tag: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16:1-4)

-시대의 표적(sign)을 분별하라(3).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4절의 역해석이니 오류-3절 말씀에 위배됨.)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표적을 제시할 경우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맘대로 해석하고 공격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

-표적 자체를 분별하지 말라는 뜻도,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뜻도 아님. 표적을 볼 수 있는 순전한 눈이 중요함.

-미국과 중국

(왜 언론이 매일 트럼프를 사소한 것으로 폄훼할까?)

(왜 김정은은 다시금 잠적했을까?)

(김정은은 거지가 되었다. 김정은이 부자가 될 가능성은?)

(왜 현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풀어낼까?)

(이처럼 돈을 살포해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

-왜 하나님이 나에게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념 전쟁의 유익은? 이념전쟁을 이용하는 방법은?

-북한의 특별한 기회

-코로나로 경건한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짐.

-재택근무, 재택 공부 온라인의 기능이 높아짐.

-직장이나 학교는 간헐적으로. 소규모로. 팀 단위로.

-소그룹 활성화.

-기존 질서의 붕괴 (금융, 석유산업, 학교, 교육, 대형마켓,

-의료 산업의 고공행진

-인싸의 시대는 가고 아싸의 시대가 열리는가?

-비 대면 일대일 접촉 시대가 열린다.

-집단은 결코 개방적이지 못할 것이다. 민증을 까야 일원이 되는 시대.

-교회는 윤리의식을 현실화하라.